논어 12편 안연 4장 · 원문·풀이

司馬牛問「君子」。子曰：「君子不憂不懼。」曰：「不憂不懼，斯謂之『君子』已乎？」子曰：「內省不疚，夫何憂何懼！」

독음 · 사마우문군자 자왈 군자불우불구 왈 불우불구 사위지군자이호 자왈 내성불구 부하우하구

쉬운 풀이(요약) · 안으로 돌아보아 부끄러운 잘못이 없다면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司 맡을 사 사 / 馬 말 마 마 / 牛 소 우 우 / 問 물을 문 문

君 임금 군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不 아닐 불

憂 근심 우 우 / 懼 두려워할 구 구 / 斯 이 사 사 / 謂 고할 위 위

之 갈 지 / 已 이미 이 이 / 乎 어조사 호 / 內 안 내 내

省 살필 성 성 / 疚 오랜 병 구 구 / 夫 지아비 부 부 / 何 어찌 하 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